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사무처리회를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은혜 장로 교회 - 변창희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사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턴)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목사

SINCE 1975

2021년 5월 23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에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예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YouTube tfbc

www.tfbc.org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중에 눈을 들어”
“내 앞에 주어진(날 향한 계획)”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백영기 집사

봉헌찬양

1,3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에베소서 5:18-21

제목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응답찬송

1부: 172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
3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9-10)

6. 2021년 여름성경학교(VBS)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6/25(금)-27(주일) / 대상: Preschool 부터 현재 6학년 자녀

회비: \$30 (가능한 체크로 해 주세요. Pay to TFBC, Memo: VBS)

등록은 교회 로비와 온라인(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자녀들에게는

VBS Kit(T-shirt, Crafts자료, 찬양CD 등)를 가정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7. 제 57기 중보기도 사역: 6/1(화)부터 시작되는 제 57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로비에 사인업 하시거나 교회 사무실 혹은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fbc002@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 신청내용: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 중보기도 희망 요일과 시간 (예: 화요일 4시부터 5시까지).

8. 생명의 삶 6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9. 현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수수료 현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현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 C-Drive 사역: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기부물품이나 항목현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우리교회는 안전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2) 입장 절차를 지켜주세요(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

(3)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자리에 앉아주세요.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소천: 故 문성주 사모 5/17(월) 소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 Tom Bayliss, Andrew Kezele, Floyd Richardson, Etienne Rudegear, Anthony Milas, Eric Mose, 최재돈, 오창자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 새벽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예배를 제공합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분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세요.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故 문성주 사모의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사무처리회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무처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장소 : 6/6(주일) 오후 1시, 분당
- * 안건 (1) 교회 사역 및 운영에 대한 리포트(2020년 3월~2021년 3월)
(2) 2021년 임시 예산 승인 (3) 2021년 임시 임명집사 승인
(4) 제4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선출 및 구성
- * 2021년 예산안(가안)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예산안은 2020년(작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안을 미리 보기 원하는 성도는 교회 사무실(업무시간 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촬영과 복사는 안됩니다. 원활한 사무처리회 진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있는 경우 교회 대표 이메일(tfbc002@gmail.com)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 도 정수데호스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24: 평강]
"확고한 믿음이 주는 평강"
성경본문 누가복음 7:18-35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백영기 집사 수요 정수데호스 집사	1부 명숙헨리 집사 3부 안병철 집사 수요 백장미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분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5/24(월)	출애굽기 21:12-27	정주영 목사	5/25(화)	출애굽기 21:28-36	전우일 목사
5/26(수)	출애굽기 22:1-15	안재훈 목사	5/27(목)	출애굽기 22:16-31	정주영 목사
5/28(금)	출애굽기 23:1-13	전우일 목사	5/29(토)	출애굽기 23:14-33	남궁곤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 **본문: 출애굽기 6:1; 14:13-14**

[출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그림이 잘 보여지지 않지만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각자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번째 본문 [출애굽기 6:1]에 보면,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고, 한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미래'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모세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진 미래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모세가 보게 된 미래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게 된 미래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가슴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의 삶에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고난 앞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미래'를 보는 정도에 따라서 순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은 같은 땅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두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시간을 '재앙'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증거'로서 진정한 소망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고난이 '재앙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에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 올 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으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깊게 고백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점점 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했던 것이 아니었고, 믿음과 순종이 처음부터 견고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미래'를 포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진정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나의 계산과 애굽의 재앙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강한 손' 만을 보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할 수 없다', '안 된다'고만 말하던, 전형적인 불순종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고, 앞으로 흥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함께 순종해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 흥해 바다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출14:2]. 그런데 순종하여 도착하게 된 이 장소는 모두가 보고 싶었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앞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보게 된 현실은 흥해 바다 앞입니다.

사방에 산이 둘러싸 있고, 눈 앞에는 막막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 뒤에는, 애굽 군대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 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발 걸음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곳 사방에 우겨 씹을 당한 것 같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바다 앞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 바다 앞에 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곳에 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을 뿐인데, 내가 도착한 곳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바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셨습니까? 모세는 원래 불평하던 자 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 라며, 몇 번이고 미래를 포기하던 모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막막한 흥해 바다 앞에서 오직 한 사람, 소망의 미래를 보게 되어진 모세 한 사람 만이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동안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선포되면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10번이나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시간이 현실로 다가 왔을 때, 눈 앞의 상황만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순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현실은 피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소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즉,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눈 앞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세상의 길로만 달려가던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바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중에 소망의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흥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듯이, 예배시간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겠다고, 그 바다 앞에서 모세와 같이 진정한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심으로 흥해가 갈라지고, 마침내 드러나게 된 그 바다 밑바닥의 마른 땅을 모두가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갇힌 바 된 그 바다 앞에서도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겸손하게, 가만히 서서 기다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독상 질문]

1. 최근에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보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2. 우리 교회가 함께 보아야 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3. 나에게도 '돌이켜 가라'고 말씀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